

지역 소식통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거점시설 공동 운영 협약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속적 공동체 협력과 거점시설 공동 운영을 위해 '매화풍류마을 주민협의회' 및 '시고르청춘', '커피를 잇는 마을', '이부바', '아트팜' 총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8월 16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항집), 매화풍류마을 주민협의회(대표 변영배), 시고르청춘(대표 윤나연), 커피를 잇는 마을(대표 문선아), 이부바(대표 심재명), 아트팜(대표 심상희)가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부안군 내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을 약속하고 총 4개의 거점시설(창업플랫폼 1동 2호 및 2동, 어울림어하우스, 문화예술공방) 공동 운영에 대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 위탁운영 기관 모집

정읍시가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가정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 미만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돌봄서비스(급식간식 제공과 놀이·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수성동에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8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시설을 설치·운영(5년 이상)할 수 있는 건물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 법인·단체다. 희망하는 기관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확보

고창군, 기금 활용에 청년층에 투자 초점 맞춰

전북 고창군이 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140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를 비롯해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지역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군은 행안부의 기금사업 발표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5월 말 투자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7월 서울에서 대면 평가

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심덕섭 군수도 직접 참석해 사업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확보된 기금을 지역내 인구감소 쪽이 가장 심각한 청년층에 투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층이 탄탄한 정착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가족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출억제와 신규 유입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투자계획 사업으로는 전북대 한옥학과 신설·운영,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청

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지원사업, 서남부권 어울림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공신후조리원 신축사업 등이다. 군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 140억 규모의 사업비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시급성, 타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종합검토해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장기계획을 수립해 기금사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에 반영된 기금을 활용해 '군민행복! 활력고창!'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색 있는 부안 변산마실길 제2코스(송포~성천항)에 붉노랑상사화가 다음 주말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객 및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서해 해님이 겹쳐 환상적 절경

부안 변산마실길 제2코스, 붉노랑상사화 이달 말 최절정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색 있는 부안 변산마실길 제2코스(송포~성천항)에 붉노랑상사화가 다음 주말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객 및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부안군은 부안 변산마실길 제2코스의 붉노랑상사화가 8월 20~27일 최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돼 전국의 사진작가와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붉노랑상사화는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땐 잎이 없어 맑은 꽃을 꽃을 잎을 그리워 한다는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꽃으로 매년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부안을 찾는 관광객 및 탐방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도 유명한 서해바다

일몰과 함께 붉노랑상사화를 감상할 수 있어 무릉도원을 보는 듯한 환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날이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늦은 여름 부안 변산마실길 제3코스를 걸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제3코스가 품고 있는 적벽강과 채석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전국의 사진작가와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안 변산마실길은 붉노랑상사화와 서해바다의 해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한다"며 "무더운 여름 힐링할 수 있는 산·물·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힘쓸 것"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서

심덕섭 고창군수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은미)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인재양성 교육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행정과 상호협력 방안 모색했다. 앞서 고창군은 조차개편을 통해 인재양성과 신선했고, 여성·보육·청소년·인재양성 업무를 한 곳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집에선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듯이, 어린이집에선 선생님이 즐거워야 아이들이



심덕섭 고창군수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즐겁게 놀 수 있다"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82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22일부터 지급

고창군이 다음주(22일)부터 총 82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총 5만13215명(2만18773세대)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30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군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고 1가구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총 40만원, 4인 가구는 5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고창읍에선 신청이 개시되는 첫 주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5부제를 시행한다.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8인 경우, 23일에는 2와

7인 경우, 24일에는 3과 8인 경우, 25일에는 4와 9인 경우, 28일에는 5와 0인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특히 면담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지급 행정서비스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이 고창군으로 환수돼 군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요구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행안부 주관 규제 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로 2건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506건이다. 행안부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신규사례 54건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의 사례 2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신규사례 2건은 20년간 장기 방치된 미준공 대형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해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한 재산권 보호' 사례다. 시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을 인수받아 건설사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20

년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대형건축물에 대해 철거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67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당시 선형대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민원인이 소유한 부지에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던 것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판단해 인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